

■ 2024년도 창작의과정 지원심의(예심-분과1)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4년도 창작의 과정(예심-분과1)
- 회의일시 : 2023년 12월 7일(목), 10:00-12:00
- 회의장소 : 온라인(zoom)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김성호, 백다흠, 이정은, 이혜민, 제상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4년 창작의 과정 사업은 예술 분야의 실험성 및 역동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주제 및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조건 및 제약이 없는 개방형 지원사업으로 예술 현장의 동시대성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공모사업입니다. 2024년도에는 전 장르를 통합하고, 더 많은 개인과 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응모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이번 사업 공모 결과 무려 1,241건 이라는 전례 없이 많은 지원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대량의 지원신청 건수가 접수됨에 따라 지원심의회는 1차 예심, 2차 본심의 절차로 운영하였습니다. 1차 예심은 신청자의 중점활동 분야에 따라 분과1(문학, 시각예술, 다원예술 분야)/분과2(공연예술분야)로 구분하여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2차 본심은 전 장르 통합심의로 진행하였습니다. 분과1 예심에서는 지원신청사업 666건 중 행정결격 사업 32건을 제외한 634건을 대상으로 전수검토 및 종합토론의 과정을 거쳐 84건의 사업을 본심 대상으로 결정했습니다.

문학, 시각예술, 문화일반(탈장르, 기술융합, 기획/제작 등)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5인의 분과1 심의위원은 크게 3가지의 심의 기준을 고려하였습니다. 첫째, 지원사업의 목적과 신청사업의 부합성(30%), 둘째, 활동 계획의 충실성(50%), 셋째, 활동 계획의 기대효과(20%)를 중점적으로 보았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기금이기 때문에 지원이유 및 지원 이후 효과가 명확해야 하므로 신청자가 본 사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기획의도의 타당성, 활동 계획의 구체성, 참여 인력의 역량 및 역할의 적절성, 예산의 투명성 및 적합성, 활동 방향의 발전 가능성, 후속 계획의 타당성 등 본 사업을 통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다각도로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지원신청서의 추진 일정과 계획이 현실적이고, 계획된 일정 내에서 제시된 목표와 예산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를 철저히 검토하였고, 우수한 지원신청서를 선정하고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번 2024년 창작의 과정 사업을 통해 볼 수 있었던 국내 문화예술계의 다양한 시각과 정신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제적인 부분에서는 환경, 생태계, 도시, 지역, 공간, 동물, 동시대성, 소외계층, 직업, 종교, 음악, 한국의 역사 문화, 예술의 본질, 예술가 정체성, 원작 활용 연구, 고유 콘텐츠 개발 연구, 장르 융합 연구 등 다양한 주제가 등장했습니다.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작품 제작을 위한 이론 및 배경 연구, 재료 및 소재 연구, 신기술 연구 등 각종 도전적인 시도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문화

예술계의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창작의 과정이라는 사업 주제에 맞게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기획안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직은 확립되지 않은 작품 주제에 대한 고민도 많이 담겨 있었고, 국내외 답사 혹은 인터뷰를 통해 이를 구체화하고자 하는 기획들이 많았습니다.

본심 대상으로 선정된 84건의 지원신청서들은 동시대성에 대한 이슈를 다루는 작품 기획부터 작품 주제를 찾기 위한 여정에서 하나의 소스가 다양한 장르로 활용될 수 있는 한국 고유 콘텐츠 개발까지 다양한 시도를 담고 있습니다. 선정된 건들은 공통적으로 지원신청서가 매우 상세하고 충실하게 작성되었으며, 활동 계획이 구체적이고, 2024년 창작의 과정 사업의 지원 취지를 잘 이해하고 반영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이들 연구가 작품을 구상하는 데 있어 주춧돌이 되기를 바라며, 긍정적인 선순환으로 작용해 이 기획의 결과를 확장하고 발전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본 사업이 앞으로도 지속되어 창작자들이 안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널리 정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창작의과정(분과1) 심의위원 일동

■ 2024년도 창작의과정 지원심의(예심-분과2)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4년도 창작의 과정(예심-분과2)
- 회의일시 : 2023년 12월 7일(목), 15:00-17:00
- 회의장소 : 온라인(zoom)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김수미, 김효영, 임홍석, 조사방, 한석진

'창작의과정'은 작품 발표 외 다양한 창작 활동을 수용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예술 분야의 실험성 및 역동성 증진, 다양한 창작 주체의 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2024년부터는 분야 및 장르별 구분 없이 지원 조건 및 지원금 규모를 일원화함으로써 수용 가능한 지원대상과 내용의 폭을 넓히고자 하였습니다.

1,241건이라는 대량의 지원신청 사업이 접수됨에 따라 지원심의회는 1차 예심(분과별 운영), 2차 본심의 절차로 운영하였습니다. 1차 예심은 신청자의 중점활동 분야에 따라 분과1(문학, 시각예술, 다원예술 분야)/분과2(공연예술분야)로 구분하여 심의를 진행하였고, 2차 본심은 전 장르 통합심의로 진행하였습니다. '창작의과정' 분과2의 예심은 연극/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분야에서 행정 결격 2건을 제외한 총 573건의 신청사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전수검토 및 온라인채점, 종합토론 결과에 따라 84건을 본심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심의기준인 신청사업의 목적과 지원사업과의 부합 여부(30%), 활동 계획의 체계성과 실현가능성, 참여인력의 전문성, 예산 편성의 적정성(50%), 신청사업의 발전가능성과 기대효과(20%)에 따라 평가하였습니다.

신청사업을 검토해본 결과, '창작의 과정' 사업 목적이 작품 발표 "외"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결과물 중심의 프로젝트가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창작산실' 등 작품 발표를 위한 지원사업이 아닌 '창작의과정'에 지원한 이유를 파악하기 어려웠으며, 다양한 예술 주체의 실험적 활동을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방법론적으로 대부분 유사하게 실행 계획이 짜여졌다는 점에서 사업의 주제나 내용을 고려한 좀더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방법론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나 '창작의과정'은 결과물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기획 의도나 목적, 실행 방법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중요합니다. 활동 자체로서 의미와 가치를 가질 수 있는지가 선정 여부를 판별하는 큰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명확하지 않고 모호한 내용, 또는 수필식의 글쓰기는 프로젝트의 기획 목적이나 실행 계획을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 전달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르 및 분야별 구분 없이 통합되어 사업이 운영됨에 따라 대중예술을 포함한 다양한 예술 장르의 창작자들의 지원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다만, 대중예술 기반 프로젝트 중 내용적, 형식적, 방법론적으로 실험성과 동시대성이 부족한 신청사업의 경우 본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심에 있어서, 창작 작업의 마중물로서 가치가 있고 실행 방법과 소재 발굴에 있어서 독창성이 있는 작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인력 구성과 활동 내용을 고려했을 때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역시 선정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 대상이었습니다.

창작의 과정 사업이 분야 및 장르별 통합으로 인해 지원 대상 및 내용이 다양해진 만큼, 향후 개인 작업으로의 기대효과를 넘어 새로운 실험을 통해 활동 분야에서 발전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4년 창작의과정 분과2 심의위원 일동

■ 2024년도 창작의과정 지원심의(본심-통합)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4년도 창작의 과정(본심)
- 회의일시 : 2023년 12월 18일(월) 14:00-16:00
- 회의장소 : 아르코미술관 위원회의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김성호, 김수미, 김효영, 백다흠, 이정은, 이혜민, 임홍석, 제상아, 조사방, 한석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24년 분야별·장르별로 각개 지원 및 운영하던 <창작의 과정> 사업을 일원화하였습니다. 지원내용과 대상, 그리고 지원금 규모를 일치시킴으로써, 지원 대상과 지원사업 내용의 폭을 더욱 넓혔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개인 및 단체들이 더욱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험적이면서도 파격적인 다양한 활동을 열린 형태로 지원하고자 하였고, 지원조건 및 제약이 없어 올해 전례 없는 많은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본심에서는 시각, 문학, 문화 일반, 연극/뮤지컬, 전통예술, 음악, 무용 분야 전문가 총 10인이 참여하여 참신하고 동시대 예술 현장에서 가장 많은 고민과 생각이 담긴 사업들을 선정하기 위해, 처음으로 통합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심의위원의 종합토론을 통해 본심 대상 168건 중 98건, 880백만원을 지원 결정하였습니다.

10인의 심의위원은 본심에 앞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전수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의 기준은 1차 심의와 마찬가지로 세 개의 심의 기준을 고려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지원사업의 목적과 신청사업의 부합성(30%), 두 번째는 활동 계획의 충실성(50%), 세 번째는 활동 계획의 기대효과(20%)를 중심으로 심의하였고, 각각 전수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업계획을 2번 이상 검토하였기 때문에 신청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뒷받침되었습니다.

<창작의 과정> 사업은 새로운 작품 발표 자체를 목표로 하지 않으며, 대신 '과정'을 중심으로 한 사업들을 선정하려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심의위원의 전문 의견을 반영하여 지원신청서의 내용이 예술,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가치가 있는지? 동시대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면서도 예술적 자유도와 창작의 다양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동시대성과 연계된 주제를 통해 예술의 역할과 영향력을 잘 보여주고 있는지?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심의에서는 동시대 문화예술 현장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보여주는 우수한 사업들이 많이 선정되었습니다. 다양한 장르와 매체를 넘나드는 사업들이 주목받았으며, 예술의 경계를 확장하고자 하는 시도들도 있었습니다. 창작자들의 열정과 비전이 잘 전달되었으며, 그들이 직면한 고민과 도전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이 같은 사회적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하였고,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된 98건의 사업은 예술가의 생애, 실험적 사운드 연구, 전통 악기 연구, 공연 소품 연구, 도시 연구, 지역 문화 연구, 안무 연구, 기술 혹은 장비 연구, 재료 연구, 직업 연구, 작가 연구, 무대 조명 연구, 앙상블 사운드 연구, 가상 캐릭터 연구, 사회적 소외 계층을 위한 예술 연구, 한국 예술을 정리하고자 하는 시도, 사회적 이슈를 예술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시도, 한국 문화를 원형으로 다양한 예술을 창출하고자 하는 시도 등 동시대 문화예술의 다양한 양상과 동향을 반영한 주제들이 등장했습니다. 예술과 문화를 통해 사회적 변화와 대화를 끌어내는 사업들이 많았으며, 잠재력과 영향력을 가진 우수한 사업들에 감탄하였습니다. 최종 선정된 건들은 공통적으로 동시대 예술 현장에서의 혁신과 실험에 대한 노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2024년 창작의 과정 사업의 지원 취지를 가장 잘 이해하고 반영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심의과정에서 제시된 주요 의견들을 종합해보면 크게 (1) <창작의 과정> 심의에서 중요하게 반영한 부분, (2) <창작의 과정> 사업의 정체성에 대한 의견으로 종합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창작의 과정> 사업이 창작과정에 있어 마중물로서의 가치, 예술창작의 실험 가능성, 그리고 아이디어 및 독창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창작의 과정> 사업과 <창작산실> 사업 간의 명확한 차이를 두어야 하고, <창작의 과정> 사업만의 정체성을 강화하여 사업 간 변별성을 두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창작의 과정> 사업 취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신청서의 구체성이 떨어져 선정하지 못한 사업들도 많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번 심의를 통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예술창작의 '과정'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장려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선정된 사업들이 문화예술계의 다양한 주체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예술 생태계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다양한 예술 형태와 의견을 존중하고, 창작자들을 위한 안정적인 창작 환경과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을 지속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24년 창작의과정 심의위원 일동